

빗겨간 예언들 (Deflected Prophecies)

허성범 (architectural/practice)

침묵과 함께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수화는 테이프를 들어 정사각형을 바닥에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분주한 공사 현장처럼 공연은 여전히 어수선하게 준비 중인 상태로 보였다. 긴장을 불러일으키기엔 아직이라 생각할 즈음, 준비가 되었다는 듯 작가는 사각형 앞에 앉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객이 되었다. 배우의 자유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채기 힘든 것처럼 이 순간의 김수화 개인과 작가 김수화는 중첩되어 있다. 어디서부터 공연의 시작이었을까? 작가가 테이프를 쥐는 시점? 아니다. 관객이 공연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아니다. 이내 공연의 시작점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직감에 이른다. 침묵과 함께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다.

“An apple.” 긴 기다림 끝에 침묵을 깨고, 기계에서 음성이 터져 나왔다. 퍼포머 김수화는 즉시 사과를 집어 바닥에 그어진 사각형 안으로 옮긴다.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 굴절된 와이파이 신호는 재차 “apple”을 쏟아내고, 사과는 경계를 넘나든다. 변형된 신호에 의해 “water”라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온다. 투명한 병에 물을 붓기 시작한다. 기계가 발화하는 apple - 사과, water - 물이라는 단순한 언어적 관계는 퍼포머의 몸이 개입하며 안무로 전환된다. 사과는 더 빠르게 옮겨지며, 물병의 물은 위태롭게 끝까지 차오른다. 상호 작용하며 반복적으로 얹히는 신호와 수행 사이에서 근육은 팽팽하게 당겨진다. 다급한 움직임은 불안정해지고, 긴장은 한계에 다다른다. 이러한 상태는 퍼포머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물이 흘러 넘쳐도 계속 들이붓는 순간 이완되고, 원초적인 의구심으로 바뀐다. 함수처럼 작동하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며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이 관객들의 머릿속을 떠다닌다. 하지만 관객의 이러한 성실한 시도는 스스로 무주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¹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작가의 행위와 관객의 해석은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듯 엇갈리기 때문이다. 관객은 보고 있으나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Apple은 사과가

¹ 모텐 H. 크리스티안센, 닉 채터, 『진화하는 언어: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언어는 어떻게 창조되고 진화했는가』, 이혜경 옮김, 웨일북, 2023, 64-65쪽.

“울릭 나이서(Ulric Neisser)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아니다. water는 물이 아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는 단지 와이파이 신호에 따른 송수신 과정일 뿐이다. 의미를 찾으려는 관객의 선행적인 권리는 침해되며 작가와 관객의 관계는 무너진다. 우리는 모두 아무 곳도 아닌 곳에서 서로를 마주한다. 메시지는 소거되고, 형식만이 남은 제스처 게임이 시작된다. 스퀘어는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는 미지의 공간으로 나아가며, 신호-몸-사물은 새롭게 배열된다.

김수화는 고백한다. “안무가로서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결과는 없다”²는 무기력함과 “실체 없는 대상에 저항하면서 그들 사이에 머물기 위해 뒷짐을 지겠다”는 자조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본인도 이 곳에 ‘작가로 오지 않았음’을 밝히며, 관객을 호출하지 않는다. 관객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다. 신호-몸-사물은 작가와 관객 없이 발생하는 자의적인 수행으로 바뀌며, 새로운 사건과 공간을 연결한다. 번역이라는 매개 없이 작동하는 이 기계적인 연산 과정은 태초의 언어 생성과 공명하며 오해와 이해 사이를 진동한다. 이는 공연의 시작점을 아득히 먼 과거로 앞당기며 스퀘어를 끊임없이 시점이 요동치는 사건의 지형으로 전환시킨다. 여러 신체가 와이파이 신호에 관여하며,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개체이자 변수로 존재한다. 이는 제사장과 그의 신도들이 춤추는 듯한 제의적 장면, 그리고 전자가 에너지 궤도를 예측 불가능하게 이동하는 양자 도약처럼, 이질적인 순간들이 동시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겹침의 상태를 형성한다.

〈스퀘어 프랙티스〉는 침묵으로 비릇된 빈 공간으로 시작하지만 곧 불확정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집합적인 풍경이 된다. 작가와 관객은 소멸하고, 신체만이 남은 채 ‘우리’라는 주체와 언어적 표상은 해체된다. 공연의 끝에는 누구의 몸도 아닌 익명의 몸들이 제스처 게임처럼 협력하며 움직이며, 동시에 누구의 언어도 아닌 새로운 언어가 시작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물을 지시하고, 다른 세계를 구축한다. 규정 불가능한 신호-몸-사물의 자의성은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게 하고, 공간을 뒤흔든다. 절대적인 정사각형의 엄중했던 기하학은 입체적인 시공간을 가진 풍경들의 중첩으로 다시 한번 유동적인 환경으로 변모하며, 쉴 새 없이 평면을 일그러뜨린다. 이 순간, 김수화는 작가라는 자아를 벗어나 비물질화된다. 마치 무명(□□)³의 존재가 그러하듯 여러 겹의 딜레마 속에 신호와 사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우겨 넣는다.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거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아슬한 평행선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비인간 존재의 관계를

² 김수화는 공연에 앞서 공유한 작업 노트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안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³ ‘이름 없음’. 영화 곡성(2016)의 천우희 역.

가뿐히 넘어서는 새로운 도약이자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진 인간의 얼굴이 파도에 휩쓸려 지워질 운명이라 말했던 푸코의 예견이 실현된 사건이다.⁴ 인간성을 상실한 혹은 초월한 말과 사물, 그리고 신체는 모든 의미를 이탈하며,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다. 잠깐의 침묵 이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기계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것은 어떤 질서를 가져와 현실을 재편하는 미지에서 온 소식⁵이다. 우리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며, 들은 것도 들은 것이 아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움직였다.

⁴ 이규현, 『미셀 푸코, 말과 사물: 지식의 풍경과 언어의 검은 태양』, 살림출판사, 2019, 71쪽.

⁵ "News from Nowhere"는 윌리엄 모리스가 1890년에 발표한 유토피아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